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8일 충남 당진시장을 방문,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세 초반부터 네거티브 난타전

박 “문, 실패한 정권의 핵심실세”... 문 “박, 유신독재 잔재의 대표자”

대선 캐스팅보트 쥔 충청서 대격돌

18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초반부터 정책과 비전은 없고 비판만 난무하면서 정치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27일 민주당을 겨냥한 후보를 “실패한 정권의 최고 핵심실세”라고 몰아붙였고, 이에 맞서 문 후보는 박 후보를 “유신독재 세력 잔재의 대표자”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양측 간 난타전은 28일에도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지표까지 제시하면서 참여정부 실패론 확산에 주력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부 때 퍼주기식으로 국가운명을 잘못해 5년간 국가채무가 1.2배가 늘어났다”면서 “등록금도 당시 국공립대는 57%, 사립대는

35%나 올랐다”고 주장했다.

박선규 대변인은 이날 노무현 정부 당시 대학 등록금과 부동산 폭등 사례를 언급한 뒤 “그때 2인자였던 (문 후보)은 그 부분에 대해 염치가 있어 야 한다”면서 “5년 전 역사의 과오를 자인하고 스스로 폐족이라고 불렀던 집단의 최고 책임자”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공동 책임론’으로 박 후보를 몰아붙였다.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 5년간 실정의 책임 절반은 분명히 박 후보에게 있다”고 공격했고, 홍영표 상임부대표는 “박 후보는 민생 파탄으로 실패한 정권에 협력하고 방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공동책임은

저야할 박 후보가 반성하기는커녕 과거의 수구세력까지 모두 끌어 모아 벌이는 ‘그들 만의 잔치’는 ‘국민의 눈물’이 될 게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네거티브 공방이 더 심화할 수 있다”면서 “그럴수록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부동층에게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를 유발시켜 투표 참여율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한 대선 후보가 28일 충청권에서 대격돌했다. 두 후보는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승패를 좌우했던 중원 지방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촉출한 그물망 유세전을 펼쳤다.

박 후보는 어머니의 고향인 충청권에서 과반수 득표를 해서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이고, 문 후보는

후보 단일화 이후 이 지역에서의 지지를 상승바탕을 기반으로 전체 판세를 역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세종시에서 하룻밤을 보낸 박 후보는 오전 10시 충남 홍성 하상 북계주차장 유세를 시작으로 예산·서산·태안·당진·아산·천안 등 충남지역 7곳을 순회했다. 전날 대전·세종·공주·논산·부여·보령 등 6곳을 찾은 데 이어 이틀째 충청 대장정이다.

전날 고향인 PK(부산·경남) 방면에 이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유세전을 가진 문 후보는 이날 대전으로 내려갔다. 그는 어린이집을 방문, ‘복동이, 어린이집 가다’ 행사를 갖고 복지정책 구상을 밝혔으며 이어 대전 전자통신연구원 구내식당에서 연구원들과 오찬을 한 뒤 신안·세종·당진·아산·천안을 돌며 릴레이 유세전을 펼쳤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안, 다음주 캠프해단... 지원 나설까

5일만에 측근들과 오찬... “지지자 입장에서 판단하겠다”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는 28일 향후 행보와 관련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후보는 사퇴 선언 후 칩거 5일만인 이날 공평동 선거캠프 부근에서 본부장 및 실장급 인사들과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유민영 대변인이 전했다.

유 대변인은 또 “안 전 후보는 담담한 표정이었고, 현재 안 전 후보는 고마운 분들에게 다시 전화를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며칠 간 책을 보고 영화를 보면서 쉬었다”고 설명했다.

안 전 후보는 특히 이날 오찬에서 문 후보와 선거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안 전 후보의 적극적인 선거지원을 희망하는 민주당측은 문 후보의 태도를 노크의 예를 태웠다.

하지만, 한 캠프 인사는 안 전 후보와 만난 뒤 “지난 23일 사퇴 회견문이 ‘메인 기조’라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도 “안 후보는 지금까지 한 말 그대로 실천해왔고 약속을 다 지켜왔다”면서 “조만간 선거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안 전 후보는 또 이날 오찬 자리에서 캠프 인사들에게 “뭘라 드릴 말씀이 없다. 정말로 진심으로 고맙다”고 한 뒤 “지지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큰 마음의 빚을 졌다”며 “평생의 빚진 마음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빚을 꼭 갚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퇴 선언 다음날인 24일부터 지방 모처에 머물다 이날 오전 상경해 박선숙·김성식·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 유민영·정연순 대변인 등 10여명의 캠프인사들과 1시간30분가량 만났으며, 오찬 회동 후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다.

이처럼 지방 칩거가 길어지면서 지원 시기도 다음주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예정됐던 캠프 해단식은 다음주에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원장을 해단식에서 문 후보 지원 원인에 대해 언급할 예정인 만큼 실질적인 지원 시기도 해단식 이후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 대선 결선투표제 ‘깜짝카드’ 왜?

‘새정치’ 매개 안철수 연대·진보결집 노림수

민주당을 겨냥한 대선후보가 지난 27일 유세에서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후보는 이날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총력유세에서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결선에 나갈 후보를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는 제도다.

문 후보가 결선투표제를 전격적으로

로 들고 나온 것은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교훈’이 적잖이 작용했다는 게 문 후보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광온 대변인은 28일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에 매몰되기도 하는 국민에 의해 자연스럽게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결선투표제를 ‘새정치’를 위한 핵심 개혁과제로 제시, 안 전 후보 측 지지를 견인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후보 측 ‘새정치위원회’도

결선투표제 도입 문제를 정치개혁 과제로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 등 소수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민주당에 표적 강화라는 측면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해왔으나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은 사실상 외면해 왔다.

때문에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은 일제히 환영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구두논쟁에서 “단일화 소” 실패로 돌아가자 아예 단일화를 법제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일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을 겨냥한 대선후보가 28일 대전역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측, 10대 공약 제시

정치·경제복지 등 5대 정책 대폭 반영

민주당을 겨냥한 대선후보 측은 28일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의 공약을 대폭 반영한 10대 공약을 확정해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윤섭 당 정책위의장 겸 선대위 공감1본부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치부문을 안 전 후보와 발표한 새 정치 공약선언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경제복지·외교 통일안보 분야도 합의된 부분은 다 반영했고”고 밝혔다.

정치분야 공약의 경우 여야정 국경 협의회 상설화, 대통령 인사권 남용과 부당한 권력개입 금지, 국회 인사 청문회 판단 존중,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 강제당론 지양 등 안 후보 측이 요구해 새정치공약선언에 포함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다.

일자리·경제민주화 공약에선 지역 인제 채용우대제 도입, 영세업체와 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안 후보의 공약으로 반영됐다. 남북문제에선 안 후보가 제시한 북방경

제라는 표현을 공약에 실고, 북방 농업협력추진 등 북방경제 3대 사업을 제시했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공약에서도 안 후보가 주장한 혁신경제 개념을 수용했다. 실질적 무상보육,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등은 복지분야, 고교학점제 등 교육 분야에서 안 후보 공약을 수용한 것이라고 문 후보 측은 설명했다.

한편, 문 후보는 29일 오전 여수 서교동 사거리에서 거리 유세를 한 뒤 순천으로 자리를 옮겨 순천정민박람회 조직위원회를 방문한다. 오후엔 광양 중앙동에서 거리 유세를 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경매를 배우고 수익을 원하는 /동호인 모집

- 모집대상**
 - 처음으로 경매를 배우실 분
 - 경매를 배우고도 수익을 못 내신 분
 - 특수 물건과 부실채권에 관심이 있는 분
 - 중자돈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분
 -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 하실 분
- 특전(무료)**
 - 교재/프린트물
 - 매월 회식/임장활동 참가
 - 교육기간중 1인 1물건 추천
 - 평생 교육/관리분석 혜택
 - 본사 사무실 수시 이용
- 교육기간**
 - 매주 수/금요일 오후 7시~9시
 - 3개월 단위로 반복 순환식 스테디
- 교육내용**
 - 지분물건 가장임차인등 특수물건
 - NPL(부실채권)물건
 - 실전사례 중심 스테디
- 회비**
 - 한강 일시불 550만원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추천 물건 상담전화 010-5879-0005		추천 물건 상담전화 010-8227-7759	
수기동 [근린시설 4층] 대652㎡, 건2387㎡ 감정가 14억 최저가 4억5천	숙박시설 [치평동] 대704㎡, 건2042㎡ 감정가 32억 최저가 22억	북구 대촌동 [2층공점] 대지 1506평 > 건물 1031평 감정가 39억8천 매매가 25억5천	화정동 [예산직] 대지 330평 > 건물 1357평 감정가 41억5천 매매가 20억(협의후결정)
나주남평 [주유소] 대4428㎡, 건1553㎡ 감정가 10억6천 최저가 6억8천	신안읍해 [횡정, 판매시설] 대4706㎡, 건1123㎡ 감정가 18억 최저가 10억	군산 [바이오에너지공점] 대지 3025평 > 건물597평 감정가 99억4천 매매가 38억 (협의후결정)	영암 [노인병원] 대지 2878평 > 건물 2209평 감정가 95억2천 매매가 27억3천
전북김제 [물류센터] 대8076㎡, 건5004㎡ 감정가 25억 최저가 8억	전주시덕진구 [유충주점] 대665㎡, 건988㎡ 감정가 11억4천 최저가 5억8천	목포 상동 [숙박시설] 대170평 건544평 감정가18억6천 최저가13억1천	여수학동 [근린상가] 대136평 건513평 감정가15억 최저가 10억5천
화순이양 [공점] 대6536㎡, 건2056㎡ 감정가 9억8천 최저가 2억8천	보성읍 [상가] 대685㎡, 건763㎡ 감정가 7억2천 최저가 1억5천	무안 망운 [숙박시설] 대257평 건346평 감정가11억 최저가6억2천	구례 용방 [공점] 대1295평 건363평 감정가13억 최저가9억2천
충장로 [근린주택] 대215㎡, 건306㎡ 감정가 4억6천 최저가 2억	목포대양동 [수양관] 대1786㎡, 건408㎡ 감정가 4억8천 최저가 1억7천	화순 도곡(무인텔) 대1904㎡, 건2628㎡ 감정가 26억7천 최저가 18억7천	광산구 신창동 [대지] 대150평 감정가8억7천 최저가6억1천
		나주중앙동 [근린상가] 대330평 건480평 감정가23억1천 최저가16억2천	서구 치평동 [숙박시설] 대213평 건177평 감정가32억 최저가22억4천
		광산구 월계동 [상가] 대135평 건81평 감정가6억3천 최저가3억6천	북구 용전동 [공점] 대700평 건423평 감정가22억7천 최저가14억6천

임대 및 매매
김수희 공인중개사 010-8567-4600

▶ 12월중순 open 예정인 (주)솔향기맑은터에서 업계최고의 대우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찬모(여)2명, 설갯이(여)1명, 출생일6명, 매니저(남, 여)2명, 매점(여)1명, 경리(여)1명, 영업부(남, 여)2명
* 복리후생 : 4대보험, 퇴직금, 월4회휴무, 급여 : 업계최고 대우 및 성과상여금
* 근무처 : 나주시남평읍 통림리 171번지 서류수시 면적, 상담가능(시간외) H.010-7570-7525